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대 이란 공격이 미 인플레이에 주는 여파는?
- YahooFinance: 뉴욕 연준 총재 “트럼프 관세, 기업과 소비자가 부담했다”

[미국 금융]

- Bloomberg: 오일 급등하면서 미 주식과 국채 하락
- YahooFinance: 중동 사태 달러 강세에 금값 하락

[물류]

- WSJ: “중동 갈등으로 선박들 수에즈 운하 이용 또 지연”

[운송]

- Bloomberg: 중동 위기로 항공 1만2천편이 취소

[에너지]

- WSJ: 브렌트 가격, 재작년 이래 최고...85달러 돌파
- WSJ: 중동 위기와 날씨로 미 천연가스 선물가 전망 상승

[글로벌 경제]

- WSJ: 트럼프 이란 전쟁이 글로벌 인플레이와 오일가 상승 부추켜
- Bloomberg: 블룸버그 전문가들 “이란 전쟁으로 글로벌 물가 상승 예상”

[인공지능]

- WSJ: 매출 계속 감소 Target CEO, 회복 방안 마련

[미국 경제]

WSJ: What the Iran Strikes Could Mean for U.S. Inflation

대 이란 공격이 미 인플레이에 주는 여파는?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오일 가격을 치솟게 하면서 가솔린 가격은 물론 전반적인 물가가 오르고 있다.
- 지속적인 중동 위기로 어제 월요일 오일 미 선물이 6% 상승했으며 올해 들어 거의 24% 올랐다.
- 한편 JP 모건 CEO인 Jamie Dimon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는다면 물가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사

YahooFinance: New York Fed's Williams: US businesses and consumers have paid for tariffs, pushing up inflation

뉴욕연준총재 “트럼프 관세, 기업과 소비자가 부담했다”

- 뉴욕 연준 총재 John Williams는 오늘 화요일, 트럼프의 관세가 대부분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부담했으며, 그 전체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 그의 오늘 발언은 뉴욕 연준이 지난달 발표한 연구 결과 이후 나온 것으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첫 8개월 동안 관세 비용의 94%가 미국 측에서 부담되었고, 외국 수출업체는 6%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 한편, 뉴욕 연준 총재는 관세가 현재까지 물가를 0.5~0.75%p 올린 것으로 추정했다. 연준의 선호 지표에 따르면 12월 기준 물가 상승률은 3%로, 연준의 목표치인 2%를 1%p 초과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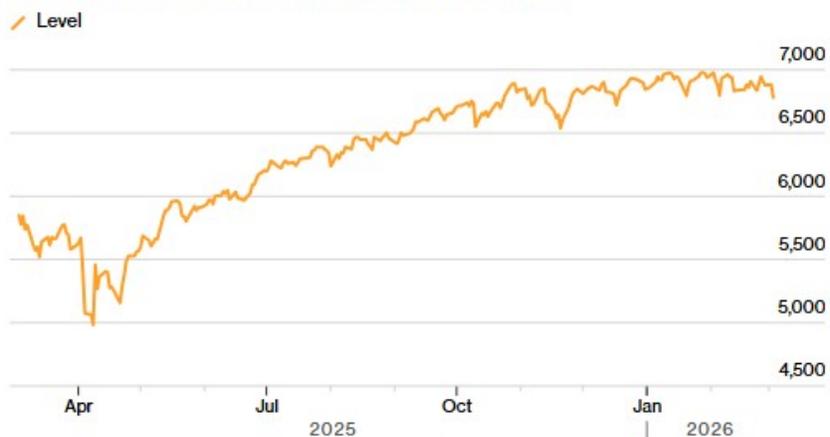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Stocks and Bonds Sink as Oil Surge Rattles Traders 오일 급등하면서 미 주식과 국채 하락

- 이란 전쟁이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은 가운데 주식이 하락하고 국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속적인 전쟁 가능성으로 에너지 시장이 흔들리고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브렌트유는 85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 S&P 500과 나스닥은 오늘 화요일 12:00pm 현재 1.5%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이 중앙은행들의 물가 안정 정책에 부담을 주면서, 투자자들은 이제 2026년에 연준의 두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월 이후 최대 이틀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고, 달러는 강세를 보였다. 금값은 나흘 연속 상승세를 멈췄다.
- 핵심 우려 사항은 얼마나 오래 기름 가격과 가스 가격이 상승세를 보일 것인지 관건이라는 것.

S&P 500 Is Set for Its Lowest Level in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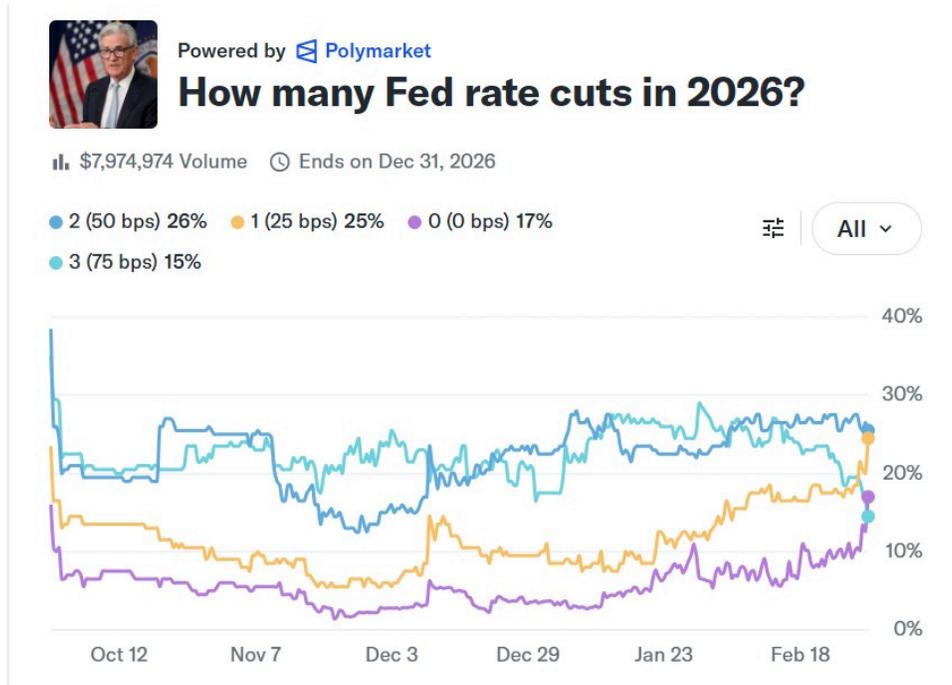
Source: Bloomberg

기사

YahooFinance: Gold Falls as Stronger Dollar Offsets Middle East Risk Premium 중동 사태 달러 강세에 금값 하락

- 트레이더들이 중동의 위기 상황 속에서 강달러와 높은 인플레이 전망을 저울질하는 가운데 금값은 4일간 랠리를 거듭한 가운데 하락세를 보였다.

- 오늘 화요일 오전 1.1% 상승하다 4.5%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중동 사태가 에너지 가격을 폭등시키고 인플레이를 자극하는 상황에서 연준이 오랫동안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일 때도 금값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 이번주 달러 지수는 1.5% 상승했고 2년물 국채 금리는 수개월만에 월요일에 상승했다. 트레이더들은 9월까지 금리 동결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기사

[물류]

WSJ: Iran Conflict Delays Shipping's Return to Suez Canal, Hapag-Lloyd Says

“중동 갈등으로 선박들 수에즈 운하 이용 또 지연”

-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후에 컨테이너 선박의 수에즈 운하 재운항이 크게 지연되고 있다.
- 지금까지도 소매업체들과 제조업체들이 후티족의 공격으로 수에즈 운하를 거의 2년 동안 이용하지 못하고 우회했는데 이제 다시 수에즈 운항 이용 재개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선사인 Hapag-Lloyd의 CEO인 Rolf Habben Jansen는 이같이 밝혔다.
- 많은 선사들은 이란의 위협과 미 해군의 경고 후 호르무즈 해협과 Gulf of Oman에서 운항을 중단한 상태다.

기사

[운송]

Bloomberg: Airline Cancellations Top 12,000 as Iran Targets More Sites

중동 위기로 항공 1만2천편이 취소

- 전쟁이 4일째로 접어들면서 항공사들이 중동 전역으로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고 있다.
- 이번 혼란으로 두바이와 도하같은 주요 환승 허브를 포함해 12,3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다.
- UAE는 시간당 최대 48편의 항공편이 전쟁 노출 지역을 피해 안전 항로로 운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사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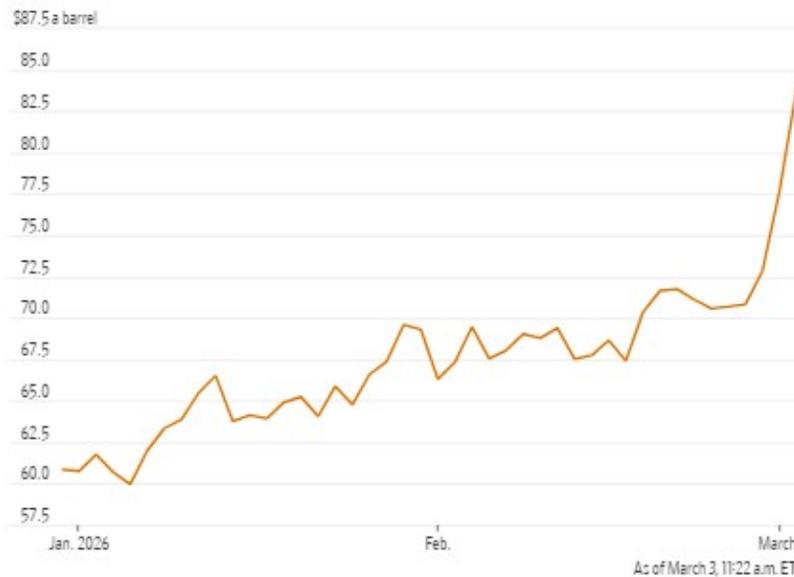
WSJ: Brent Crude Hits \$85, Highest Level Since 2024
 브렌트 가격, 재작년 이래 최고...85달러 돌파

- 중동 위기가 계속될 조짐을 보이면서 화요일 오전 오일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 국제 기준인 브렌트유는 85달러를 돌파하기도 하면서 지난 2024년 이래 최고치를 보였다.
- 미국 벤치마크인 서부 텍사스 중질유는 8% 상승한 배럴당 77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 전쟁이 빨리 끝날 것 같지 않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위협과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계속 트레이더들은 우려하고 있다. 위기가 계속될수록 오일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Brent Crude on Pace for Biggest Jump Since Early Days of Russia-Ukraine War

By WSJ Staff

Most-active Brent crude oil futures contract



Source: FactSet

기사

WSJ: Iran Conflict, Weather Outlook Lift U.S. Natural Gas Futures
 중동 위기와 날씨로 미 천연가스 선물가 전망 상승

- 글로벌 천연가스 수출 시설의 카타르가 생산을 중단하고 이달 말 늦은 한파 시즌이 예상되면서 미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 뉴욕상업거래소의 천연가스 가격은 5.3% 상승한 3.117달러/mmBtu를 기록했다.
- EBW Analytics의 Eli Rubin, “3월 중·말 기간의 한파와 이란 전쟁 위험이 단기적인 상승 요인과 맞물릴 수 있지만, 중기적 펀더멘털은 여전히 약하다고 말했다.

기사

[글로벌 경제]

WSJ: Trump's War on Iran Threatens to Drive Up Oil Prices and Inflation 트럼프 이란 전쟁이 글로벌 인플레이와 오일가 상승 부추켜

-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동 공격과 이란의 이스라엘/미국 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으로 글로벌 오일 시장이 위협받고 있다.
- 이란은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운항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해협은 글로벌 석유 공급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 이 같은 오일가 상승은 인플레이 상승을 일으키면서 글로벌 경제에 부담을 주고 많은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동결토록 할 가능성이 있다.

기사

Bloomberg: Global Inflation Expected to Pick Up From Iran War, Survey Shows

블룸버그 전문가들 “이란 전쟁으로 글로벌 물가 상승 예상”

- 블룸버그가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글로벌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 주로 물가가 높은 분야는 오일과 가스 뿐만 아니라 항공료가 올라가고 공급망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 위협이 미국이나 유럽, 중국 등의 GDP에 작은 영향을 줄 것이지만 이 상황은 중동 위기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Target Sales Just Fell Again. Now Its New CEO Plans for Turnaround.

매출 계속 감소 Target CEO, 회복 방안 마련

- Target은 13분기 연속 매출이 줄었다고 발표했으며, 1월 31일로 끝난 분기에는 동일 매장 매출이 2.5% 감소했다.
- 이에 따라 CEO Michael Fiddelke는 상품 구성 개선, 쇼핑 경험 확대, 기술 활용도를 개선해 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회사는 올해 매출이 약 2% 오르고, 주당순이익은 7.50~8.50달러 수준에서 전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KOCHAM | 445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